

Issue Paper

2011-3

통계를 통해 본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 제조업 기업 특징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는 매년 10인 이상의 전국 광업 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통계로 매출액, 종사자수, 제조원가, 유형자산 등을 조사.
- 「광업·제조업 조사」를 이용하여 구로공단과 인근지역(서울시 구로구 신림동, 구로1-5동, 금천구 가산동, 독산1-4동, 가리봉동) 1,238개 기업의 특징을 분석,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보조 자료로 2009년 「사업체노동력조사」와 2009년 「산업단지공단DB」를 활용하였음.
「사업체노동력조사」는 1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체 수와 고용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10인 미만 사업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산업단지공단DB」는 산업단지 공단이 지정한 구역에 입주한 사업체와 고용 규모를 조사하고 있어 다른 통계자료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단지 정구역 주변 업체들의 특성과 고용 상태를 파악하려고 함.

2011.04.11

이유미(조사통계국장)
traumdeutung123@gmail.com

1. 일반현황

1) 광업 제조업 조사

표 1. 구로공단과 인근지역 제조업사업체 현황 개괄 (공업제조업 조사 2009년)

사업체 수(개)	1,238
상용 노동자 수(명)	32,490
업체당 상용 종사자 평균(명)	26
상용종사자 급여 평균(백만원,년)	27
생산액 평균(백만원)	7,286
영업이익 평균(백만원)	431
외주가공비 평균(백만원)	996

-구로공단 및 인근 지역의 10인 이상 제조업사업체 수는 2009년 현재 1,238개이며 상용 종사자¹⁾ 수는 3만 2천명 수준.

-10인 이상 제조업 기업의 상용 종사자 평균은 26명이며, 생산액 평균은 73억. 영업이익 평균은 4억3천만 원.

-상용 종사자 급여 평균은 2천 7백만 원. 상용 종사자 급여는 임직원 전체의 임금 평균으로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한 공단에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 수는 과소 측정. 공단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불법 파견, 위장도급 노동자 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

1) 1년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정규직과 1년 이상 계약 기간인 직고용 비정규직을 포함

2) 산업단지공단 등록 기업

표 2. 산업단지공단 등록 구로공단 전체 사업체 개괄(2009년)

전체 사업체 수 (개)	7,050
전체 종사자 수 (명)	113,992
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	2,561(36%)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	41,596(36%)
비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	4,498(64%)
비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	72,396(64%)

-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구로공단 사업체 전체 수는 7천개, 종사자 수는 11만4천 명임.

-구로공단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남.

-비제조업 사업체는 4천5백 개로 전체 사업체의 64%를 차지함. 비제조업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수는 7만2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4%임.

-제조업 사업체 수는 2천6백 개로 전체 사업체의 36%를 차지함. 제조업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수는 4만2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6%임.

표 3. 산업단지공단 등록 구로공단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09년)

	제조업 사업체수	제조업 종사자수
총계	2,561	41,596
10인미만	1,432(56%)	6,999(17%)
10인이상 30인미만	855(33%)	13,474(32%)
30인이상 100인미만	219(9%)	10,297(25%)
100인이상	55(2%)	10,82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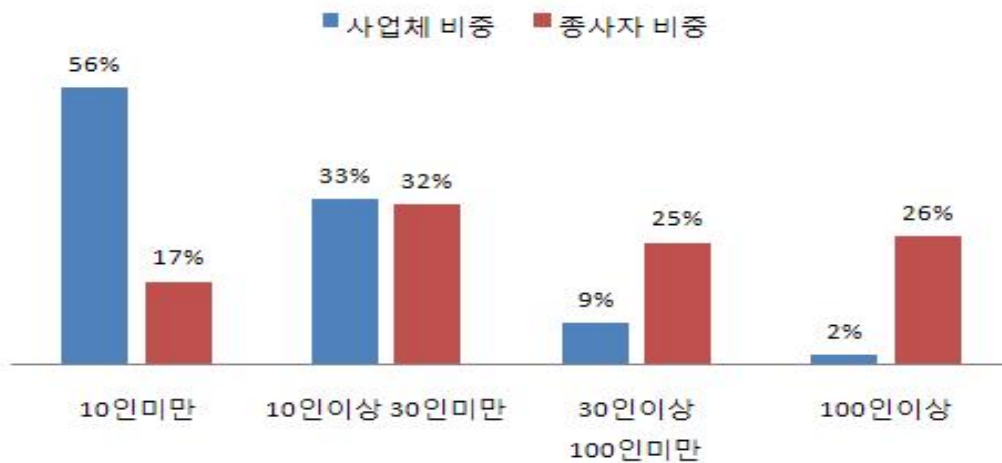
-산업단지공단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구로공단)의 범위를 1단지 구로동, 23단지 가산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들은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에도 다수 입주하고 있어 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구역에 국한되지 않게 분포하고 있음.

-본 보고서의 목적이 구로공단과 그 인근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들의 현황과 임금고용 등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범위를 구로구 신림동, 구로1-5동, 금천구 가산동, 독산1-4동, 가리봉동으로 확대하여 조사하였음.

-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한 구로공단의 사업체 중 제조업체 수는 2009년 말 총 2,561개. 이중 10인 이상 사업체는 1,129개로 구로공단 인근지역까지 포괄한 광업 제조업 조사의 사업체 1,238개 보다 109개 적음.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34,597명으로 구로공단 인근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한 광업제조업 조사보다 2,107여명이 많음.

-이러한 차이는 조사 방법상의 차이로 인한 것(산업단지공단에 사업체가 직접 등록하는 산업단지공단 데이터베이스 상의 종사자 수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통계청 조사가 차이가 남)과 조사범위를 구로공단의 인근지역 사업체까지 포함한 것에서 기인함.

그림 1. 산업단지공단 등록 구로공단 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 및 종사자 수 비중(2009년)



-구로공단은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56%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장 중심. 그러나 상용종사자 수는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83%를 차지하며,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51%를 차지. 단 이 경우에도 실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과소 추정됨.

3) 통계자료 간 비교분석을 통한 구로공단과 인근지역 사업체 특징

표 4. 광업·제조업 조사, 전국사업체 조사, 산업단지공단DB, 제조업사업체 수 비교 (2009년)

사업체 수 (개)	광업·제조업	전국사업체	산업단지공단
10인미만	조사대상아님	4,462	1,432
10인이상	1,238	1,035	1,129

표5. 광업·제조업 조사, 전국사업체 조사, 산업단지공단DB, 제조업 종사자 수 비교 (2009년)

종사자 수 (명)	광업·제조업	전국사업체	산업단지공단
10인미만	조사대상아님	10,820	6,999
10인이상	32,490	32,578	34,597

-전국사업체 조사²⁾는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광업·제조업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10인 이하 사업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산업관리 공단보다 확대된 범위로 설정했으므로 산업단지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구로공단 주변 사업체와 노동자의 규모를 분석할 수 있음.

-전국사업체 조사의 제조업 사업체 수는 5497개. 10인 이상 사업체는 1,035개로 광업·제조업 조사의 1,238개와 산업단지 공단DB의 1,129개와 격차가 크게 나지 않음.

-전체적인 업체수 규모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0인 미만 업체의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결과가 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비해 3,030개 많음.

-이는 구로공단 인근지역에 10인 미만의 영세한 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

-전국사업체 조사 구로공단과 인근지역 제조업 상용종사자 수는 43,398명으로 산업단지 공단에 비해 1,802명 많음. 전국사업체 조사의 10인 이하 사업장 상용종사자는 10,820명으로 산업단지 공단통계에 비해 3,821명 많음.

-두 자료를 비교해 10인 이하 사업장 상용종사자 규모 격차가 전체 규모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로공단 주변 다수 노동자들이 10인 이하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의미.

2) 전국사업체조사 2009년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행정구역 범위는 2009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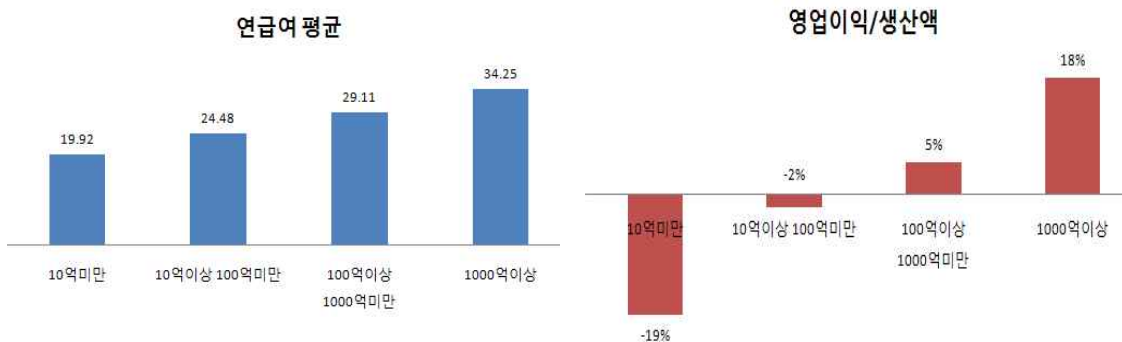
2. 광업 제조업 조사를 통해 분석한 생산액 규모별 특징

표 6. 광업 제조업조사 생산액 규모별 사업체 특징 (2009년)

	10억미만	1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1000억미만	1000억이상
사업체수 (개)	236	833	154	15
사업체 비중	19%	67%	12%	1%
상용 종사자 수(명)	1,944	17,266	10,449	2,831
상용노동자 비중	6%	53%	32%	9%
업체당 상용종사자 평균(명)	8	21	68	189
여성노동자 수(명)	722	5,217	2,986	1,219
여성노동자 비중	37%	30%	29%	43%
연급여 평균(백만원, 년)	19.92	24.48	29.11	34.25
외주가공비/영업비용	11%	10%	15%	20%
연급여/영업비용	22%	15%	9%	5%
영업이익/생산액	-19%	-2%	5%	18%

-생산액 10억이상 100억 미만의 기업이 67%에 달하며 대부분을 차지. 상용 종사자 수는 1000억 이상이 평균 189명, 10억 미만의 기업이 8명.

그림 2. 생산액 규모별 상용종사자 연급여 평균(2009년) 그림 3. 생산액규모별 영업이익/생산액 (2009년)



-연급여 평균은 1000억 이상 기업이 3천4백만원, 10억 미만 기업이 2천만 원으로 1.7배 이상 많음.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면,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 기업들 중 10억 미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2009년 영업손실이 심각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4. 생산액규모별 여성노동자 비중(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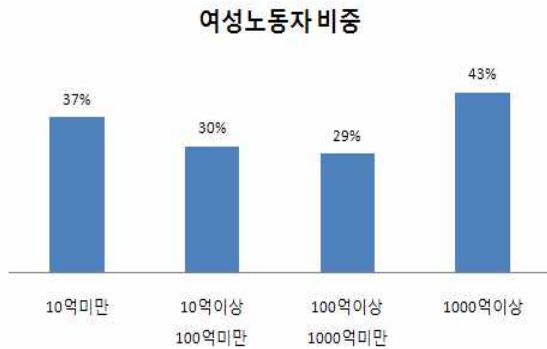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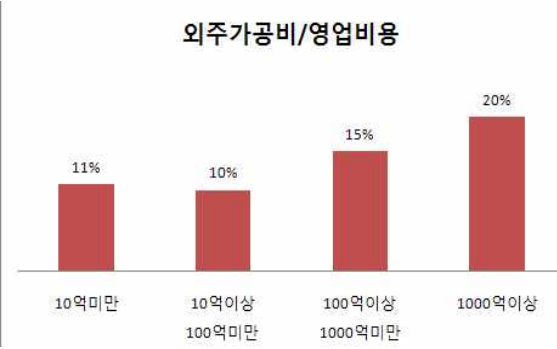


그림 5. 생산액규모별 외주가공비/영업비용(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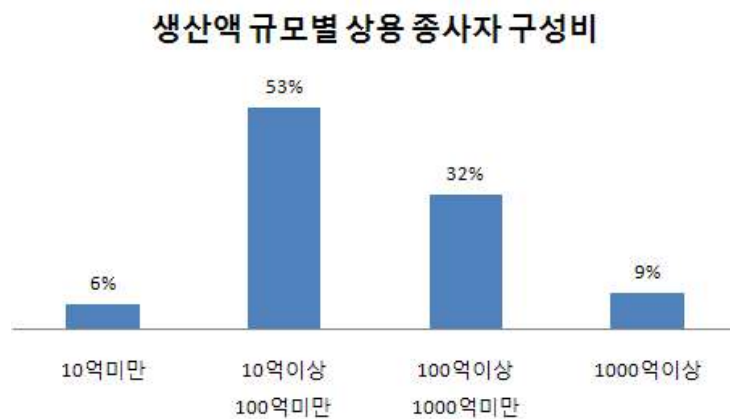


-여성 노동자 비중은 1000억 이상 사업장이 43%로 가장 많고 10억 미만 사업장이 37%로 두 번째로 많음.

-여성노동자 고용비율은 주로 영세한 사업체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구로에서는 1000억 이상 사업체가 여성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음. 이는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의 산업구성에서 전자산업과 의류산업의 비중이 큰 것에서 기인함.

-영업비용 대비 외주가공비 역시 1000억 이상 사업장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외주가공비의 경우 회계상으로 아웃소싱 비용을 의미하지만 불법적 파견 노동이 일반화된 제조업 공단에서는 사실상 파견업체에 지불하는 파견노동자 임금 및 수수료 비용인 경우가 많음.

그림 6. 생산액 규모별 상용 종사자 구성비(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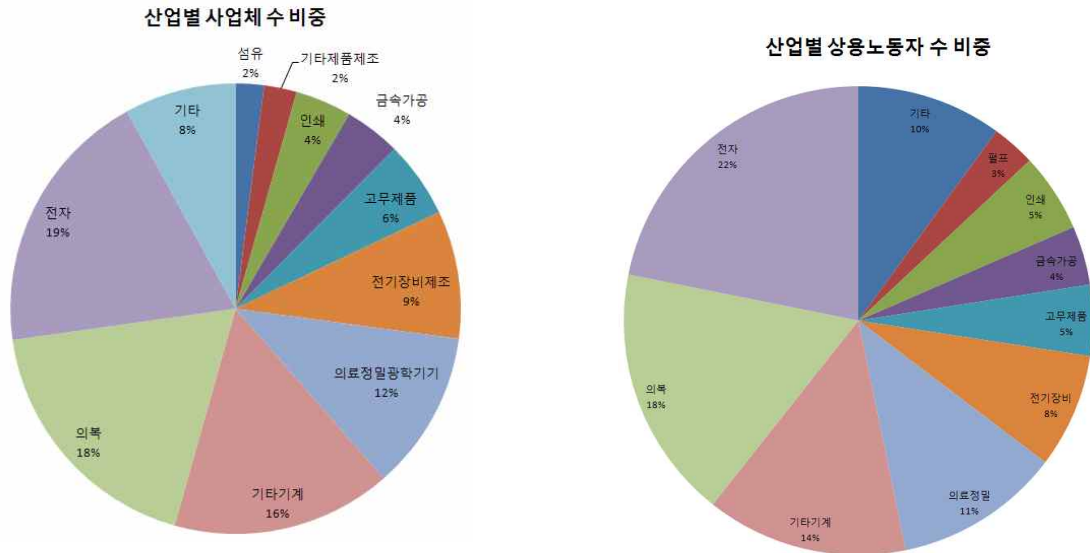


- 생산액 규모별 종사자 수는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 53%로 가장 많음.

3. 산업별 특징

1) 광업·제조업 조사

그림 7. 산업별 사업체 수 비중, 산업별 상용 종사자 수 비중 (2009년)



-구로공단과 인근 지역 사업체들은 전자, 의복, 기타기계, 의료정밀 광학기 산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기장비제조와 고무제품, 금속가공 등이 각각 10%이하의 비중을 차지함.

-산업별 상용노동자 비중은 전자산업이 22%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의복, 기타기계, 의료정밀 광학기 산업 순으로 비중이 큼.

그림 8. 산업별 상용종사자 수 평균(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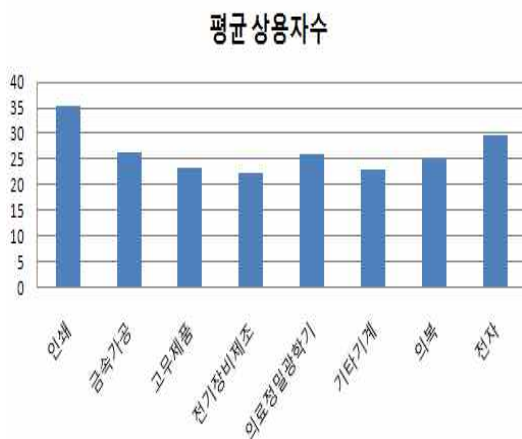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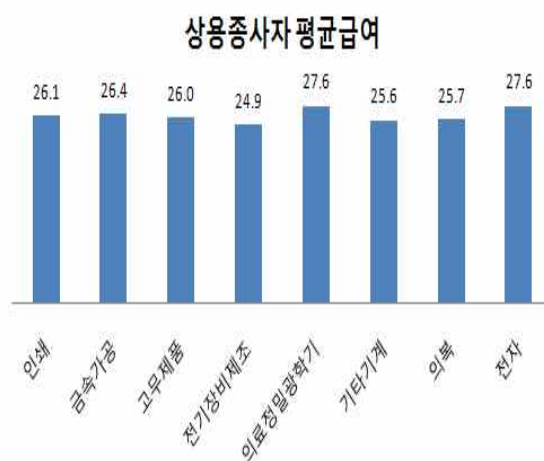


그림 9. 산업별 상용종사자 연급여 평균(2009년)



-인쇄 산업의 상용 종사자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전자가 30명이며 금속가공과 의료정밀광학기 산업이 26명으로 대부분 사업장의 규모가 20~30명임.

-급여액은 산업별로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함.

2) 통계자료 간 비교분석을 통한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 산업특성

표 8. 광업제조업 조사, 전국사업체 조사, 산업단지공단DB 제조업사업체 산업별 비교 (2009년)³⁾

업체 수 비중	광업제조업	사업체	산업단지	상용종사자 비중 (업체당 평균 상용종사자 수)	광업제조업	사업체	산업단지
의복	18%	14%	9%	의복	17%(25)	16%(9)	10%(19)
인쇄	4%	4%	5%	인쇄	5%(35)	5%(10)	5%(17)
고무제품	5%	4%	3%	고무제품	5%(23)	4%(9)	4%(21)
금속가공제품	4%	13%	3%	금속가공제품	4%(26)	5%(3)	3%(16)
전자부품	19%	12%	21%	전자부품	22%(30)	20%(14)	25%(19)
의료정밀	11%	8%	14%	의료정밀	11%(26)	11%(11)	14%(16)
전기장비	9%	9%	15%	전기장비	8%(22)	9%(8)	12%(13)
기타기계	16%	20%	13%	기타기계	14%(23)	15%(6)	11%(13)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와 10인 이하까지 포함하는 사업체조사 통계를 비교해 보면 의복과 전자산업이 10인 이상 사업체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금속가공제품과 기타기계는 10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체의 비중이 큼.

-산업단지공단이 지정한 구역에 위치한 업체를 조사한 산업단지DB와 구로공단 주변 업체들까지 포괄한 사업체조사 통계를 비교해 보면 의복산업은 구로공단 주변에 다수 입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의류업체들은 주로 독산동에 밀집해 있어서 사업체조사결과에서 업체 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금속가공제품과 기타기계 역시 공단 주변지역에 입주하고 있음. 전자산업은 주로 산업단지 공단이 지정한 구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어 사업체 조사 결과보다 산업단지DB에서 업체 수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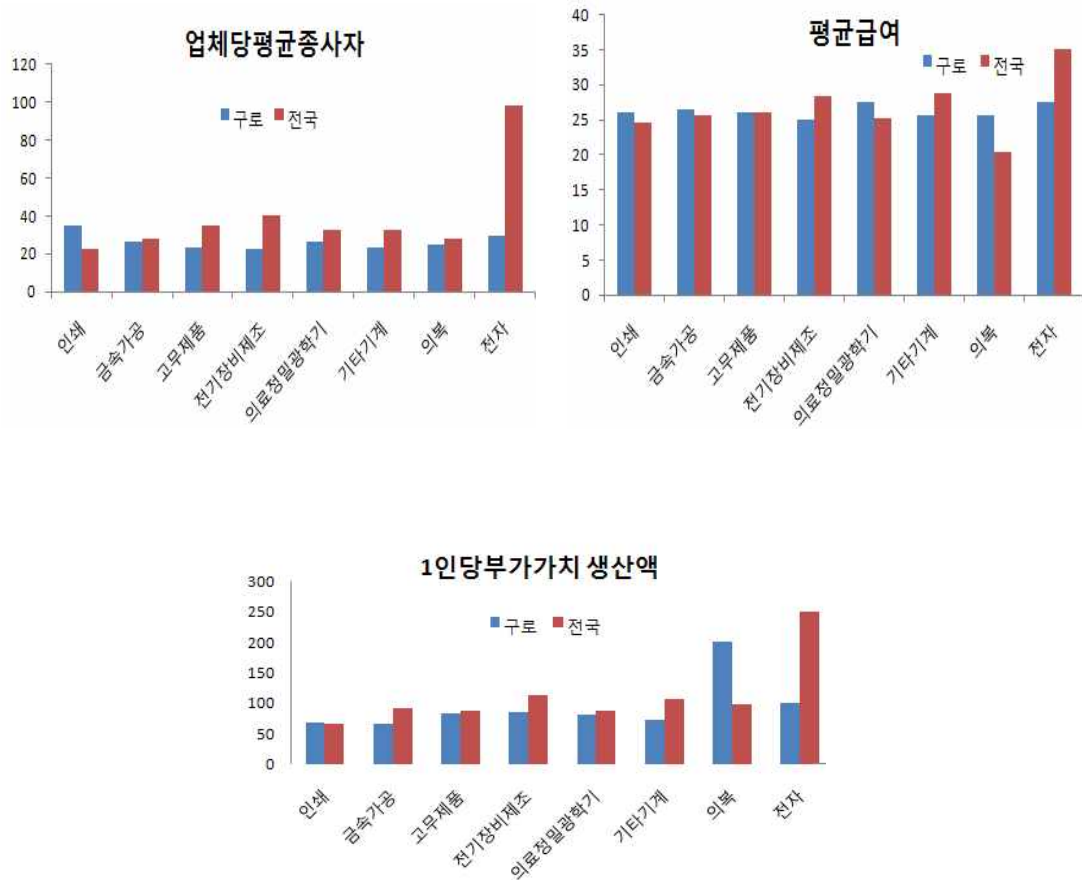
-전자산업은 산업단지공단 지정구역에 다수 입주하고 있으며 10인 이상 사업체가 많음. 구로공단 주변 지역에는 10인 이하 사업체인 대체로 영세한 금속가공제품과 기타기계 업체들과, 1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이 높은 의류업체들이 분포하고 있음.

-모든 통계조사 결과에서 전자산업의 상용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옴. 또한 업체당 평균상용 종사자 수도 높은 축에 속함.

3) 표 8. 은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의 주요 산업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 비중이 낮은 산업은 표기 하지 않았으므로 각각의 총계가 일치하지 않음.

4. 전국평균과의 비교

그림 10.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과 전국평균 산업별 비교 (광업제조업, 2009년)



- 영세업체가 다수인 구로공단 지역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여러 지점에서 열위에 있음.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전국 평균과 격차가 큼.

- 전자산업의 경우 전국 평균대비 업체당 종사자 수는 30% 수준이고 급여액은 79%,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40%에 불과함.

그림 11. 전국평균과 영업이익/생산액 비교(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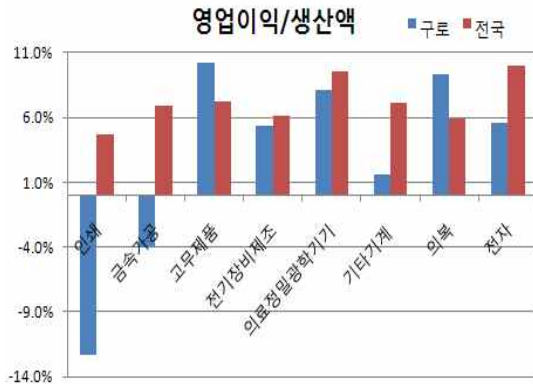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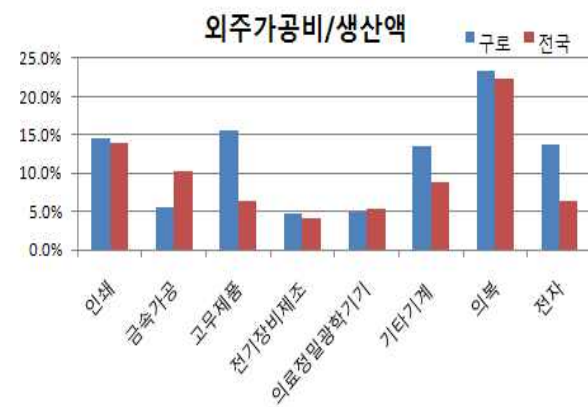


그림 12. 전국평균과 외주가공비/생산액 비교(2009년)



-생산액 대비 영업이익을 통해 산업별 수익성 차이를 분석하였음. 인쇄와 금속가공 산업이 전국수준과 가장 큰 격차를 보이면서 2009년에 심각한 영업 손실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구로공단과 인근지역에서 사업체 수나 상용종사자 규모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산업들인 전자, 의복, 기타기계 등의 전국격차를 확인해보면 기타기계 산업이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다음으로 전자산업의 격차가 큰데 구로공단과 인근지역 전자산업의 수익률은 6%, 전국 전자산업의 수익률은 10%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남.

-생산액에서 외주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업별로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과 전국을 비교하였음. 고무제품 산업이 전국차원과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의복이 구로와 전국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전자산업은 구로공단과 인근지역의 외주가공비 비중이 13.8%이고 전국은 6.4%. 구로지역이 전국수준에 비해 외주가공비 비중이 두 배 넘게 높음.

-구로공단과 인근지역의 전자산업은 업체당 평균 상용종사자 수가 30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영세한 사업체가 밀집해 있음. 구로지역의 영세한 전자산업 사업체들은 전국에 비해 수익률도 낮고 외주가공비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5. 파견 및 외주가공업체 노동자 추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파견 노동자, 또는 위장 도급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수존재. 그러나 그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주가공비를 통해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산해 보고자 함.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외주가공비는 하청업자에게 재료를 공급하여 가공을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가공비용임. 불법파견이 일반화된 구로공단과 인근지역에서 외주 가공비는 사내 위장 도급, 즉 불법파견 노동자의 임금과 파견업체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

-한편 외주가공비 산정 역시 과소 계산되는데 회계 처리 과정에서 각종 기타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

-2009년 광업제조업 조사 사업체 외주가공비 총액은 1조2천3백억원 임. 파견업체 수수료 평균이 1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파견 및 외주가공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총액은 약 1조1천1백억 원.

-위와 같이 가정하여 불법 파견 및 외주가공업체 노동자를 추산 하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⁴⁾에서 구로공단과 인근지역 단순제조업 종사자 임금은 2009년 현재 90만원.

*2009년 최저임금(4천원)에 제조업 평균 월 초과근로 30시간을 감안한 임금 (90만원+ 4천원*1.5*30시간=월 108만원, 연1,296만원)으로 추정할 경우 8만5천6백 명.

-파견 노동자까지 감안하면 구로공단과 인근지역의 제조업 노동자는 최대 11만8천여 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제조업 파견노동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그 규모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하기 위해 외주가공비를 활용하는 경우 과대 추산될 가능성이 있음.

-산업별로 외주가공비를 파견노동자 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에 편차가 있기 때문. 특히 의복산업 같은 경우 외주가공비가 가장 많은데 해외에서 들여오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큼.

-의복산업을 제외하고 파견 및 외주가공업체 노동자 수를 추정하면 4만8천여 명, 여기에 상용종사자까지 포함한 합계는 8만 1천여 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광업제조업 조사는 직업별 임금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파견 및 외주가공업체 노동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제조업 생산직급여 설정은 광업제조업 조사 평균으로 하는 것보다 산업별 고용구조조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음.

-반면 전기, 전자산업의 경우 불법 파견이 만연한 상황이라 외주가공비의 상당분이 파견노동자 임금이 라고 가정할 수 있음.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와 사회진보연대가 2011년에 발표한 「서울구로지역 전자산업 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따르면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업체를 통해 구 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⁵⁾

표 9. 전기 전자 산업의 추정 파견 및 외주가공 노동자 수와 상용종사자 규모

(단위, 명)	파견 및 외주가공 노동자 추정 수	상용종사자 수	합계
전기(상용종사자 대비 비중)	1,934(76%)	2,560	4,494
전자(상용종사자 대비 비중)	21,032(297%)	7,077	28,109
총계(상용종사자 대비 비중)	22,966(238%)	9,637	32,603

-의복산업을 제외한다면 전자산업의 추정 파견 및 외주가공 노동자가 2만1천 명으로 가장 많음. 상용 종사자 수보다 추정파견 및 외주가공 노동자가 약 3배 많을 것으로 보임. 전기산업 파견 및 외주가공 노동자 추정 수는 1만9천 명.

-전기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파견 및 외주가공 노동자 규모는 2만3천 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상용종사자 수를 합한 총 규모는 약 3만3천명으로 추측할 수 있음.

5) 「서울구로지역 전자산업 노동자의 노동 실태」 <증언> “저임금이나 파견노동이 매우 일상화되어서 파견이나 아니냐 등이 직장을 고르는데 중요한 조건은 이미 아니에요.(후략)”

6. 임금실태

-광업제조업 조사의 상용종사자 급여는 임직원 전체의 급여평균이기 때문에 직업별 임금편차를 반영하지 못함.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보조 자료로 활용.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조사로 7만 5천 가구를 조사.

표 10. 구로공단과 인근지역의 직업분류별 임금실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2009년)

	연봉제(만원)	월급제(만원)	근속년수(년)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90	4.4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기계 조직원	250	95	5.1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0	7.8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50	10.3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168	4.8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21	168	5.0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347	194	8.6
환경공학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313	200	7.1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272	210	5.7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388	250	8.5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611		4.8

-광업제조업 조사 2009년 구로공단과 인근지역 상용종사자 연급여 평균은 2천7백만원(월 환산225만원). 그러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별 임금편차가 크게 나타남.

-제조관련 단순종사자는 90만원을 받고 있어 광업제조업 조사 급여 평균인 월 225만원에 한참 미달함. 재단 및 재봉 업무 종사자 임금 역시 월 120만원으로 평균에 미달.

-반면 사무직, 연구직의 경우 급여수준이 광업제조업 조사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 경영지원 행정 관련 사무원은 연봉제로 월 3백47만원, 환경공학 연구원 연봉제로 월 3백13만원, 회계 경리 사무원은 연봉제로 월 2백72만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7. 구로공단과 인근지역의 최근 변동사항6)

1) 일반현황

표 11. 광업·제조업 조사 생산액 규모별 사업체 수 변동

		10억미만	1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1000억미만	1000억이상	총계
2007	사업체수 (비중)	345(25%)	893(64%)	142(10%)	9(1%)	1,389(100%)
2008		235(20%)	792(67%)	138(12%)	10(1%)	1,175(100%)
2009		236(19%)	833(67%)	154(12%)	15(1%)	1,238(100%)

표 12. 광업·제조업 조사 생산액 규모별 상용종사자 수 변동

		10억미만	1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1000억미만	1000억이상	총계
2007	상용종사자수 (비중)	3,256(9%)	19,271(53%)	11,963(33%)	2,014(6%)	36,504(100%)
2008		2,155(7%)	15,575(50%)	10,523(34%)	3,136(10%)	31,389(100%)
2009		1,944(6%)	17,266(53%)	10,449(32%)	2,831(9%)	32,4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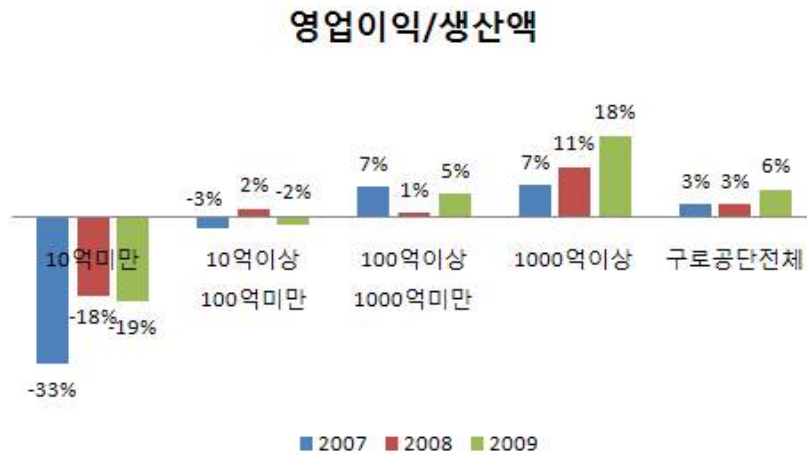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의 사업체 수가 2008년에 감소한 후 2009년에 다시 늘었으나 2007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음. 상용 노동자 수 역시 2008년에 비해 2009년 증가했으나 2007년 수준에는 미달함.

-생산액 규모 10억 미만 사업체는 업체 수가 삼년 연속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2007년에 비해 32% 줄었음. 상용종사자 수 역시 2007년 대비 40% 감소.

-반면 생산액 규모 1000억 이상 사업체는 2009년 현재 2007년에 비해 사업체와 상용종사자 수 모두가 증가하였음. 2007년에 비해 사업체 수는 67% 증가했으며, 상용종사자는 41% 증가.

6) 광업·제조업조사 통계 2007,2008, 2009년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행정구역 범위는 2009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그림 13. 생산액 규모별 영업이익/생산액 변동 비교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의 수익률은 2007-8년에 3%를 기록하다가 2009년 6%로 상승함.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는 삼년 연속 수익률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007년 -33%로 큰 폭의 영업 손실을 입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도 -18%, -19%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10억이상 100억미만 사업체들은 10억 미만 사업장만큼은 아니지만 각 년마다 -3%, 2%, -2%의 부진한 수익률을 보임. 100억 이상 1000억 미만 사업장은 마이너스 수익률은 보이지 않으나 7%, 1%, 5%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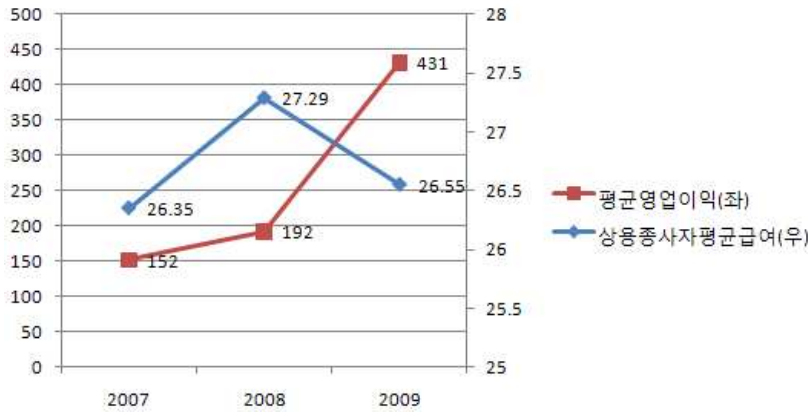
-반면 1000억 이상 사업장은 구로공단 지역 전체 수익률을 언제나 상회하는 수준에서 꾸준히 성장함. 각 년마다 7%, 11%, 18%의 수익을 올림.

-2007년에서 2009년 동안 생산규모가 큰 기업들은 손실이 적거나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수익률을 높였고 생산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영업손실이 컸음.

-결과적으로 영업손실이 컸던 생산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사업체 수와 상용종사자 모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생산규모가 큰 업체들은 영업손실도 적고 사업체 수와 상용종사자 수도 변동이 크지 않음.

-이 같은 사실을 미뤄보았을 때 생산액 규모가 큰 기업들은 2008년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하청업체 단가 인하 등의 비용절감을 통해 영업손실을 방어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했으나 생산 규모가 적은 기업들은 단가인하 압력 등으로 영업손실이 컸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음.

그림 14. 평균영업이익과 상용종사자 평균급여 변동 비교(단위, 백만원)



-삼년 간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의 평균영업이익은 1억5천2백만원, 1억9천2백만원, 4억3천백만원으로 상승했음. 특히 2009년의 평균영업이익 상승폭은 매우 높은 편으로 생산액 대비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3%에서 6%로 상승한 것 역시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는 것임.

-그러나 상용종사자 평균급여는 2009년의 영업성과와 반대로 74만원 감소하였음.

-생산액 100억 미만의 사업체들이 아직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생산액100억 이상 사업체들이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의 상용종사자를 40% 이상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 2009년의 수익률을 반영했다면 2008년보다 삭감될 수 없음.

-결국 2009년도의 상용종사자 임금은 수익성과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 전자산업

표 13.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 전자산업 생산액규모별 사업체 수 변동

연도	사업체수(비중)	10억미만	1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1000억미만	1000억이상	총계
		2007	61(21%)	183(62%)	47(16%)	4(1%)
2008	37(14%)	179(68%)	44(17%)	2(1%)	262(100%)	
2009	21(9%)	170(71%)	43(18%)	4(2%)	238(100%)	

표 14.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 전자산업 생산액규모별 상용종사자 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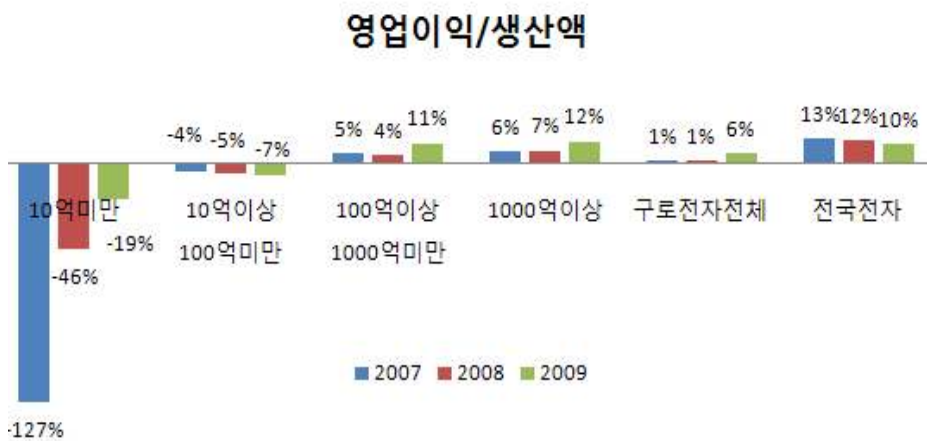
		10억미만	1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1000억미만	1000억이상	총계
2007	상용종사자수	960(10%)	4,319(45%)	3,417(36%)	810(9%)	9,506(100%)
2008	(비중)	487(6%)	3,742(47%)	3,099(39%)	551(7%)	7,879(100%)
2009		234(3%)	3,603(51%)	2,548(36%)	692(10%)	7,077(100%)

-구로지역의 전자산업은 사업체 수와 상용종사자수 모두가 감소하는 추세임. 2007년 9천5백 명에서 2009년 7천백 명으로 줄었음.

-특히 생산액 10억 미만 기업의 사업체 수와 상용종사자 수 가 크게 감소하였음. 2007년에 비해 2009년 사업체 수는 66%감소하였으며 상용종사자는 76% 감소하였음.

-비중으로 비교해 보면 10억 이상 100억 미만 업체가 사업체와 상용종사자 비중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15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 전자산업 생산액 규모별 영업이익/생산액 변동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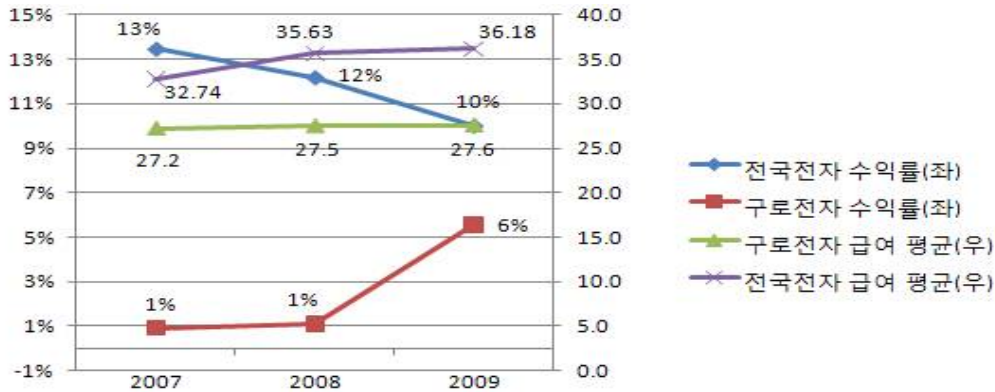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의 전자산업은 전자산업 전국평균 수익률에 한참 미달함.

-2007년과 2008년 구로지역 전자산업은 1%의 수익률을 보였으나 전국적으로는 13%, 12%를 기록했음. 그나마 2009년에는 구로지역 전자산업이 6%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전국평균과 격차를 축소함.

-생산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생산액 100억 이상의 기업들이 2009년 전국평균 10%를 상회하는 11%,

1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구로지역 전자산업 전체 평균을 높였음. 그러나 생산액 100억 미만 사업체들은 여전히 영업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림 16.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 전자산업과 전국 전자산업 수익률, 급여평균 비교(단위, 백만원)



-전국적으로 전자산업은 수익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평균급여는 꾸준히 상승. 2007년 13%, 2008년 12%, 2009년 10%로 수익률이 감소했으나 연 평균급여는 3천2백7십 만원, 3천5백6십 만원, 3천6백이십 만원으로 상승함.

-반면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 전자산업은 저조했던 수익률에서 벗어나 2009년 대폭적인 수익률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급여 인상은 미미함.

-2007년, 2008년 생산액 대비 영업이익 1%, 2009년 6%를 기록함. 그러나 연 평균급여는 2천7백2십 만 원, 2천7백5십만 원, 2천7백6십만 원으로 상승폭이 미미함.

-2009년 큰 폭의 수익률을 낸 생산액 100억이상 업체들이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 상용종사자들을 40%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그 성과가 임금인상에 반영되지 않음.

-구로공단 및 인근지역의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